

운동주·정지용·이육사...시인들의 삶과 문학

문학관 기행2

김진기 외 지음

신라시대 창건한 백담사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지나면 마음을 닦고 들어오라'는 의미의 '수심교'(修心橋)를 만나게 된다. 금강문과 불이문을 거쳐 경내에 들어가면 만해기념관이 마주한다.

지난 1995년 2월 개관한 만해기념관은 선사이자 시인으로서의 한용운의 문학과 사유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님의 침묵과 함께하는 백담사'라고 소개될 만큼 만해의 삶에서 백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백담사는 만해가 출가한 절이며 '조선불교유심론', '십현담주해'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을 완성한 곳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만해 한용운의 문화지도'가 눈에 띈다. 만해가 머물렀던 행적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는 탐골공원을 비롯해, 심우정, 생가터를 중심으로 한 흥성권 코스, 불도를 닦은 설악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담사와 가까운 만해마을에는 만해문학박물관이 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는 작품집, 친필과 영향을 받았던 저서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한용운이 편집책임자로 발간했던 잡지 '불교'와 '유심' 등도 만날 수 있다.

문학관은 문인의 삶과 사유가 응결된 대표 공간이다. 한용운을 비롯해 운동주, 정지용, 이육사, 오정환, 유지환 등의 생애와 문학을 만날 수 있는 '문학관 기행2'가 나왔다. 김진기 건국대 국문과 교수를 포함해 모두 7명의 박사과 전공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책에는 앞서 언급한 문인들 외에 서정주, 김수영, 김춘수, 신동엽, 조병화 등을 모티브로 한 문학관과 전



충북 옥천에 있는 정지용 문학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관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자들이 주목한 문인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시인들로 오늘의 한국문학을 풍성하게 일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작가와 특히 연구가 없는 문학관을 꼽으려면 운동주 문학관일 것이다. 운동주는 백간도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해방 이후 유교 시집 간행으로 뒤늦게 문학사에 등장했지만 그가 남긴 문학정신과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종로구 부암동의 운동주문학관은 인왕산 자락 초입에 자리한다. 운동주가 연희전문 시절 인왕산을 자주 올라왔던 터라 이곳에 문학관이 세워졌다. 당초 기압장이 있었던 곳인데 남은 아파트들을 철거하고 이곳을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했다.

전시실에는 운동주 시인의 생애를 연대기별로 정리한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친필 원고(영인본)와 각종

사진은 시인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시장 한 곳에 있는 우물 모형. 시인의 생각에서 가져온 우물뚝판으로 복원했는데 시 '자와상'의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관에서는 절정 '향수'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말을 갖고 뒤야 절제된 시어로 표현했던 시인의 시 정신과 문학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초기집 곳곳은 정지용의 시와 흔적들로 구성돼 있다.

김진기 교수는 "시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혹은 시대적 배경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그들이 다뤘던 시어도, 시적 표현도, 그리고 시적 통찰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 수많은 다름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라고 책의 의미를 말한다.

〈(주)박이정·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 치코 멘데스-숲을 위해 싸우다=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환경운동가 치코멘데스. 북미 최대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치코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상을 만들었다. 아마존을 삶의 터전 삼아 일하던 노동자였던 치코는 숲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뛰어든다. 책은 치코의 소박하고 위대한 인물 전기인 동시에 1980-1990년대 브라질의 사회사이기도 하다. 〈트래의 시간·1만7000원〉

▲테슬라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많은 이들에게 드림카의 이미지가 있다. CEO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급부상하며 막강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대호 테슬라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었지만 단순하지만 대단한 비전을 세웠고 결국 불가능한 베틀을 승리로 만들어 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라이온북스·2만2000원〉

▲왜 지속가능한 디지털 공동체인가=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대 거장들이 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속고했다. 사르트르, 아렌트, 들뢰즈 등의 현대 사상의 거장들을 따라가며 사상의 기저에 있는 의미를 해석한다. 현대 철학 지식을 매개



로 디지털 사회로 급변하는 공동체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고찰해본다. 〈살림터·1만7000원〉

▲세컨핸드=미동조차 없음을 만큼 고요로 이목을 끄는 조용우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말해주듯 '세컨드핸드'는 두 번째 손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앞자리에 서지 않고 그늘에 담고 뒤로 처지지도 않는 두 번째의 자리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 "조용우는 스스로를 최대한 가까이 작게 만든다. 요란과 과장 같은 건 절대 곁들이지 않는다"는 임술아 시인의 추천의 말과 맞닿은 세계다. 〈민음사·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터아웃=같은 발레단인 제나와 소울을 중심으로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청소년 소설. 숙련된 발레리나도 완벽하게 해내기 힘든 터아웃을 흡입을 데 없이 해내는 천재 발레리나 제나와 타고난 재능과 환경의 차이로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울은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다. 별과 우주를 동경하는 제나와 발레만을 사랑하는 소울의 이야기가 미래에 닥칠 과학기술과 맞물려 생각거리를 준다. 〈(주)특별한 서재·1만3500원〉

▲잘못된 게임=새로 전학 온 친구를 사귀지 못하던 하늘이는 아빠가 학급에 설치해 준 게임을 하면서 학급 안 '인싸'가 된다. "너 먼저 하게 해 줄게"라는 말 한마디

면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친구들이 하늘이의 비위를 맞춰주자 하늘이는 자신도 모르게 신이 나고 존재감이 높아진다. 순서대로 줄을 선 친구들을 무시하는 등 점차 입맛대로 행동하다 하늘이는 다시 외톨이가 되고 마는데. 〈꿈터·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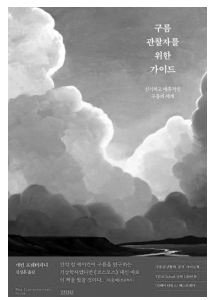
▲코코는 고구마고구마해=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코코와 코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두두의 이야기. 전작에서도 그랬듯이 책은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아이,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엉뚱해 보이는 아이가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보여준다. 코코와 두두가 보이는 소동은 결국 연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한울림스페셜·1만5000원〉

매혹적인 구름의 세계, 그 덧없는 아름다움에 경탄하라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개빈 프레터피니 지음·김성훈 옮김

120개국 5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구름감상협회'(www.cloudappreciation-society.org)에는 전 세계 회원들이 찍은 '세상의 모든 구름' 사진이 올라온다.



사이트 주인장 개빈 프레터피니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추종자들에게 맞서 '푸른하늘주의'의 진부함을 퇴치하기 위해 2005년 구름감상협회를 설립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 덧없는 아름다움에 경탄하라. 그리고 구름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듯, 공상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구름감상협회 선언문은 인상적이다.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신기하고 매혹적인 구름

의 세계'는 개빈 프레터피니가 구름감상협회를 만든 후, 그의 '솜털 친구들'(저자가 구름을 부르는 애칭)을 위해 쓴 첫 책이다. 27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발매된 이 책은 영국에서만 20만 부 넘게 팔리며 화제를 모았고 베스트셀러 '날마다 구름 한 점'의 모태가 됐다.

구름에 빠져 지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일에 매료된 그는 '구름수집가의 핸드북'을 썼고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로 2011년 왕립학회 과학도서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탁월한 비유와 익살스러운 입담을 과시하며 독자들을 매혹적인 구름의 세계로 안내한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부터 구별법, 구름과 관련한 신화와 예술, 감상법까지, 구름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책은 구름의 분류부터 개개 구름의 특징까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

또 회원들이 찍은 다양한 구름 사진과 그래픽 자료를 함께 실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책에서는 '구름의 왕' 적란운과 높은 상공을 잔물결처럼 수놓는 권적운, 천사의 머리카라처럼 섬세한 가닥

들을 나누는 권운(새털구름), 여명의 순간 무비 같은 다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고층운(높층구름) 등 열 가지 주요 구름 유형을 소개한다.

또 우주를 떠돌던 외계인이 높은 산 뒤에 잠시 주차한 UFO처럼 보이는 렌즈구름, 20세기 초 지구의 항공에 처음 등장한 '구름계의 사생아' 비행운, 호주 버크타운의 명물인 두루마리 구름,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개구름 등도 만날 수 있다.

책에서는 구름을 향한 저자의 애정도 확인할 수 있다. 구름무늬를 닮은 생선 비늘을 확인하려 어시장을 답사하고, 달리는 기차 위에서 구름의 변화를 추적하고, 활공기에 몸을 싣고 호주의 대형 구름 모닝글로리를 따라 비행한다. 그밖에 화가 코레조가 그린 "캔버스에 옮겨진 가장 예로되한, 최후의 구름 포르노 작품" '제우스와 이오'를 확인할 수 있다. 책 뒤에는 '구름감상협회구름관찰자 졸업시험' 문제가 실려 있다.

저자는 "구름을 보며 사색에 잠기고 즐기는 법을 배워보라"고 권한다. 〈김영사·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